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⑤ 의리계주의 비유

제7장 '화성의 비유'에 의해 화성(化城)인 2층의 열반은 부처님의 방편이며 1불승이아말로 잡다한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라는 취지가 설해져 있다.

그것을 이어받아 우선 푸루나·마이트라야니·푸트라가 1천2백의 아라한을 대표해 최초로 등장해 지금까지 부처님의 방편 설법, 사리푸트라와 수부티 등 4대성문에 대한 부처님의 수기, 과거와 현재의 인연, 모든 부처님의 자재한 신력 등을 듣고 말없이 이해한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서는 대중을 향해 "푸루나는 변설제일로서 훌륭하게 나의 정법을 지켜 왔으며, 나를 도와 가르침을 널리 전해 사람들을 이익케 함이 매우 컸다. 그는 과거세에도 부처님을

급까지 자기들의 허물을 참회하고 자신들의 현재 심경을 비유 이야기로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 말씀드린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부유한 친구의 집을 찾아가 음식 대접을 받고 술에 취해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마침 그 때 그 집 주인은 급한 공무로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잠들어 있는 친구를 깨운다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 집 주인은 가난하게 지내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 비싼 보배 구슬을 그의 저고리 안쪽에 매달아 두고 떠났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친구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잠이 깨어 일어나자 친구가 없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방랑의 길에 올라 다른 나라에 이르러 먹을 것, 입을 것

집주인=석존, 구슬=불성 비유

보배값고도 고생한 사람은 성문·연각 2층

수행하며 정법을 지켜 왔고 설법제일이였다. 그는 미래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 가르침이 밝게 빛난다는 이름인 법명여래(法明如來)라 하고, 그 시대를 보경(寶鏡)이라 하며, 나라는 매우 밝고 맑다는 선정(善淨)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푸루나에게 수기하신 것이다.

이 푸루나의 수기를 듣고 1천2백의 아라한들은 푸루나와 똑같이 기쁨이 주어지기를 마음속으로 원했다. 부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마하카사파를 향해 이제부터 1천2백인의 아라한들에게 미래 성불의 예언을 주라고 하시며 대표적으로 카운디나(憍陳如)에게 수기를 설하신다. 이름은 보명여래(普明如來)라 하고 1천2백의 아라한 중의 5백의 아라한인 우루빌바카사파·가야카사파·나디카사파 등도 모두 차례차례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되니, 모두 같은 이름의 보명여래가 될 것이라고 설하신다.

이 5백인의 아라한들은 부처님의 수기에 크게 기뻐하며 지

을 구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적은 돈이 생겨도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 후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이 사람의 가련한 모습을 보고, '이 답답한 친구야, 훌륭한 사내가 어찌해 먹고 입는 것 때문에 그렇게 초라해져 버렸다. 나는 자네가 안락하게 지내도록 어떤 욕망도 만족시킬 수 있는 비싼 보배 구슬을 언젠가 자네가 찾아왔을 때, 자네 저고리 안쪽에 매달아 두었으니 지금도 그대로 있을 것 일세. 자네는 그것도 모르고 고생하고 구차하게 살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구먼. 자네는 이제 그 보물로 소용되는 것을 사들인다면 항상 무엇이든지 뜻대로 돼 가난하거나 부족함이 없을 것 일세' 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자신의 옷 안쪽에 있는 보석에 대해 알지 못했던 남자는 성문·연각의 2층, 그 보석을 매달아 준 친구는 석존, 보배구슬은 불성을 비유한 것이다.

■무설정사 조실



그림·문병성

자연은 하나의 큰 생명체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⑩

별과 생명

생명이란 무엇인가? 모든 생물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으로서 생물과 그 활동을 통틀어 생명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 입장이다. 앙겔스는 물질대사를 생명현상의 기본으로 보고 단백질의 존재양식을 생명이라 했고, 위너는 생명이란 통어(統御) 바로 그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물체 현상에서 먹이 조절의 기본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에너지를 흡수해 자유 에너지를 발생하는 신진대사의 가능성을 가진 것, 또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 등으로 생명을 정의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식물이나 동물 그리고 인간에서만 생명이 있는 것일까?

생명의 종류를 보면 첫째 지상에서 경험하는 화학적 생명으로 화학반응을 통해 재생, 성장하는 유전적 특성을 지닌 것을 뜻하며, 둘째 비화학적 생명으로 분자들이 전파를 발생하면서 서로 교신하는 검은 성운(星雲)이 있고, 원자 내에 핵을 이루는 핵자(核子)들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강하게 묶여있는 소립자 생명, 천체들이 중력파를 서로 주고받으며 교신하는 중력적 생명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경우들을 고려할 때, 별을 포함한 우주 내 만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원자는 외부 변화에 반응하며 스스로 통제, 조절하면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머물러는 생명의 특성을 지녔고, 원자들이 모여 이루는 분자들도 당연히 생명을 지니며, 분자들로 이루어진 만물이 생명을 가진 지금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동양의 기철학에서는 생명은 기(氣, 오늘날의 에너지)의 취산 작용에 의해 생겨난다고 본다. 기가 모이면 유형의 사물이 생겨 생명을 가지고, 기가 흩어지면 형체가 사라져 생명이 끝난다. 이처럼 가는 스스로의 운동에 의해 만물을 생성, 양육시키고 나아가서 생명현상과 정신현상의 최종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양의 생명관은 사물들을 상호 의존적이며 유기적인 전체로 파악하며, 고정적 구조보다는 역동적 과정에 근거한다고 본다. 즉 생명을 미시적 구조로 환원시키지 않고 각 부분 혹은 각 기능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중시한다. 이런 점에서 개체로서의 생명 이외에 개체들로 이루어진 전체를 생명으로 인정하고 이를 자연이라 부른다. 따라서 자연 자체를 하나의 자기 조절, 자기 조직, 자기 운동의 능력을 갖춘 거대한 초생명체로 인식한다. 이런 생명관은 지극히 기계적이고 인간 편익과 인간 존중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인간 중심적인 서양의 생명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관에 따르면, 생명은 물질을 더욱 고도로 조직화하는 의지이며, 통합적이고, 질서의 능력이며, 이런 능력은 물질 자체 속에 그 원천을 갖추고, 이 원천은 우주 전체에 기원한다고 보며, 자연 전체를 살아 있는 생명체로 본다. 이런 생명관은 만물은 생의(生類)를 가지고 있다는 동양의 생명관과 일치한다.

불법에 따르면, 법성의 이(理)를 본체로 하는 자연에서 만유가 불성을 가진다는 것은 상의적 수수관계를 가진 유기적 생명현상을 뜻한다. 굴러다니는 돌에도 생명이 있으며, 한 돌의 흙과 티끌에도 우주의 생명이 들어 있는데 하물며 빛을 내며 만물을 양육하는 태양이나 별들이 생명을

지녔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들에게는 소립자 생명이나 중력적 생명 이외에 우리가 도저히 느낄 수 없는 별들만의 조화로운 의식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지혜의 쓰임으로 나타나는, 알파한 이기적인 인간의 여과된 의식과는 달리 조상 별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주의 섭리를 이어 가는 바로 그러한 집단 무의식을 가졌을 것이다. 생명을 가진 별들과 성간 물질로 이루어진 은하들도 역시 생명을 가졌고 또 이들이 모여 이루는 우주가 생명을 지닌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래서 우주는 살아 있으며 그러기에 만유는 숨을 쉬면서 가장 안정된 상태로 이행하려는 우주적 의지를 지니며 또 개체간의 상의적 관계를 통해 새롭게 발전된 창조적 단계로 초월하려는 생의를 지닌다. 이처럼 자연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자기를 새롭게 전개시켜 나가는 사건의 연속적 과정이며, 이 과정 속에 생명활동의 가치와 목적이 내재해 있다. 이것이 불법의 생명으로서 보편적 특성을 지닌 무기물의 생명, 민주적인 단순한 유기적 개체성을 지닌 식물의 생명, 단순한 목적의식을 지닌 동물의 생명, 복잡한 개체성과 목적의식을 지닌 인간의 생명 등 모두를 내포하는 우주적 생명이다. 이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는 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모두가 상호 유기적인 존재의 가치만큼 귀중하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개체간 상의적관계 통해

새롭게 발전된 단계로

초월하려는 생명의지



교통혼잡비용 年 19조원

무질서의 해악

17일 교통개발연구원은 2000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7대 도시에서 발생한 교통혼잡비용이 약 19조 4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의 3.7%에 해당하며 99년보다 13.6% 증가한 액수이다. 가장 많은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한 부산의 경우, 일년 동안 한사람이 약 73만 원을 도로 위에서 낭비했다. 교통혼잡비용은 도로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자동차 운행으로, 정상속도로 운행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당연히 교통혼잡비용 발생의 1차 원인은 도로건설을 앞지르는 자동차의 증가 때문이다. 하지만 과도한 자가용 이용 선호와 무질서한 운전습관에 따른 도로효율 저하도 주요 원인이다.

《열반경》에 "오욕의 강물이 신심의 선법을 파괴해버리고, 마침내 그 강물은 삼계의 인천세간(人天世間)을 멸망하게 만든다"는 부처님이 말씀이 있다. 이는 조금 편하고 자가용을 끌고 나가고 조금 빨리 가자고 교통질서를 어긴다면, 나와 남과 세상을 함께 망하게 하는 길이다. 말씀일 것이다. 나와 남이 들어 아니기에 내가 억지로 취한 이익은 타인의 희생에서 비롯된다.

타인의 교통은 또 다른 원망이 되고 이것들은 우리의 업보가 된다. 불자라면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나와 남의 이익을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이다.

나쁜 마음은 제계로 돌아오니, 마치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날리면 도리어 제 몸을 덮은 것 같네. <속경>

작은 악은 대단치 않게 알아 재앙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방울은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 차츰 큰 그릇도 채우고 만다. <대장엄경>

선악의 과보는 함께 서로 좇아 와서, 소리가 울려 산울림이 되는 것과 같다. 능히 면할 사람이 없으며 쇠사슬과 같이 모든 것을 묶어낸다. <기전자경>

영어로 배우는 불교영어

How to bow 절하는 법

삼배 three prostration, 합장 putting palms together, 오체투지 full bowing

Put your hands palm to palm with fingers pressed together. Do a half bow toward the statue and stand straight again. Then with putting palms together, bend towards the floor. First put your right hand on the floor then your left hand. And touch your head to the floor.

Therefore your body became shaped the full bowing that five parts of body(head, arms, knees) are touched the floor. Be careful to across your feet at the back, the left over the right. Repeat this two times. Stand up and do another half bow.

손가락을 모으고 손바닥을 마주 붙인다. 불상을 향해 반배를 한 후 일어난다. 그리고 합장을 하고 무릎이 바닥에 닿도록 굽혀 절한다. 오른 손을 먼저 바닥에 놓고 왼손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합으로써 몸의 모양은 오체투지형이 된다. 이때 왼쪽 발이 오른쪽 발 위에 놓이도록 주의한다. 위와 같은 동작은 두 번 반복한다. 일어나서 다시 반배를 한다.



"만약 제가 애초부터 벉걸을 안내하면서 진창으로 잠아고 있는 것과 같은 노파선(老婆禪)을 설했다면, 그가 안목이 열린 뒤에는 불림없이 나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스승께서 말씀해주신 은덕을 증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스승께서 나를 위하여 말씀해주시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만약 나를 위하여 말씀해주셨다면 어찌 오늘 같은 날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도리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3승12분교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단지 본분의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뿐이다. 만약 가르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래 배우는 사람의 근성이 아니고 둔한 때문이지, 나의 일과는 상관없다.'

마음공부란 익숙한 것에는 생소해지고 생소한 것에는 익숙해

'서장' 통한 선 공부 ⑤ 플

단지 본분의 일이 드러날 뿐

지는 것이다. 익숙한 것은 무엇인가? 익숙한 것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익혀온 세간법이다. 세간법은 모두 눈·귀·코·혀·몸·의식 등 여섯 가지 통로와 인연이 되어 나타나 는 색·소리·냄새·맛·촉각·생각 등의 경계로서 서로 구별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쉽게

생소해지는 것이고, 생소한 불법에는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흔히 '삿됨을 부수고 바름을 드러낸다' -파사현정(破邪顯正)-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삿됨을 부수고 바름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삿됨이란 본래 허망한 것으로서 부수 것이 없다. 다만 바름을 드러내기만 하면 삿됨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다. 마치 어둠은 본래 몰아낼 것이 없고, 빛을 밝히면 한 하면 어둠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세간법을 버려서 불법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밝힘으로써 세간법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다.

빛 밝히면 어둠 절로 사라진다

익힐 수가 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익혀온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세간법이다.

생소한 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도니 불성이나 불법이나 본래 면목이니 하고 이름 붙인 것으로서,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나의 본분방으로서 변함없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의식하거나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늘 한 몸으로서 떨어져 본 적이 없으면서도 확인하거나 의식한 적이 없으니 생소한 것이다.

마음공부란 익숙한 세간법에는

세간법을 분별하고

불법을 구별하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법 제대로 못보는것

생소한 불법에 익숙해짐으로써 익숙한 세간법에는 저절로 생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공부란 항상 불법을 밝히는 것이 요점이지, 세간법의 허물을 이러쿵저러쿵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지식은 늘 본분사(本分事)를 밝힐 뿐이고, 인정(人情)과 타협하여 본분사를 어그러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본분사를 밝히는 일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하고 말함에 이미 본분사가 다 드러나 있다. '어-'에서 '편-'에서 '것-'에

서 '인-'에서 '가-'에서 한 순간도 끊어짐이 없이 본분사가 움직여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어떤 것인가' 하는 말이 불러 일으키는 어떤 허상(虛相)에 머물고 막혀서 드러난 본분사를 보지 못하는 병폐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마치 황시 눈을 뜨고 감고하며 보는 것이 본래 자재하면서도, '무엇 무엇을 본다'는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그 '무엇 무엇'을 보는 것에 막혀서, 보는 것이 자재하지 못한 것과 같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어릴 때부터 익혀온 잘못된 의식의 습관 때문에 일어난다.

세간법이 어디 있고 불법이 어디 있는가? 세간법이 바로 불법이니, 불법을 떠난 세간법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세간법을 분별하고 불법을 분별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법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분별에 머물지 않으면, 모든 분별과 말과 보고 듣는 모든 경험들이 그대로 불법이니, 이 때에는 분별 속에서 분별이 없거나 말 속에서 말이 없거나 보고 듣는 속에서 보고 들음이 없거나 말도 모두 허물이요, 병일 뿐이다. 그러니 무슨 알 수 없는 비밀이 따로 있으리요.

http://www.mindfree.net/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상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상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전신의 약화와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상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심시다. 또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민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회귀목적인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용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이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이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길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종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腎臟)을 튼튼하게 하고 뼈를 제거하며 건강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공명(空鳴) 등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므로)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영기를 돋여 속력을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염수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종대학교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향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정강 대진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기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즈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